

아동의 방과 후 스포츠 종목과 참여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n the children's development of sociality by types and level of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um sports

박정화* 대구교육대학교

Park, Jung-Hwa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방과 후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이 아동들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집락무선표집으로 D광역시 초등학교 884명(남; 500명, 여; 384명)을 선정하여 저(1, 2)학년, 중(3, 4)학년, 고(5, 6)학년으로 분류하였다. 모수요인으로는 성과 학년, 스포츠 활동 참여 형태는 선호운동, 배운 운동, 하는 운동, 참여 수준은 배운 기간, 주간빈도, 자신감으로 하고 사회성 5개요인(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회성 요인 중 협동성은 성차가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저학년일수록 사회성 5개요인 모두 높다. 스포츠 참여 형태에서 배운 운동, 하는 운동의 종류는 사회성에 관여하지 않지만, 선호운동이 있는 아동이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에서 선호운동이 없는 아동보다 높다. 스포츠 참여 수준에서 운동에 자신감이 있는 아동일수록 사회성이 높으며, 주간빈도가 많을수록 사회성이 높으며, 6개월 이상 배운 아동의 협동성이 높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 on children's sociality development by types and level of participation. The subjects are lower(1, 2), middle(3, 4) and higher grades'(5, 6) elementary school students(n=884; male=500, female=384) sampled by random cluster methods from D metropolitan city. Questionnaire are modified Jung's(1971) sociality test in personality. There are types of sports, which are preferred, learned, and learning sports. The levels of sports are periods learned, frequency per week, and confidence. The sociality are rule respect, cooperativeness, activity, sociability, and autonomy. Statistics are multiple regression and parameter factor analysis. We conclude that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only cooperativeness, boy's higher than girl's. And in 5 factors of sociality, lower grade's sociality is higher than high grade. There is no difference sports participations type of learned, and learning sports, but preferred sports is differ. In cooperativeness, activity and sociability of children sociality, preferred sports(ball game, Taekwondo or personal activity) group is higher than have no group. High confidence's of activity have higher sociality than low group. More frequency per week has higher sociality than little. And cooperativeness is effected on learned sports above the 6 month.

Key words: children's sociality develop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ameter factor analysis

이 논문은 2008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56jhpark@hanmail.net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경제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와 함께 인간 삶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인은 육체적으로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세상과 동시에 더 복잡하고 고질적인 정신적 고통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동들은 놀이 공간과 여가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또래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신체활동시간은 줄어든 반면, 좁은 실내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크게 늘었다. 또한 핵가족 중심의 생활,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가정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나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팽배하고 어려운 문제를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지극히 결여되어 있다(최충식, 200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접촉하며 소통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명제는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것이며, 타인과의 소통과 공감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대의 아동은 타인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인간적이지 아닌 것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 고립감, 우울증과 같은 개인적인 정서장애를 겪거나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이승진, 이홍수, 이상화, 심경원, 2009). 그것은 아동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이어질 때, 사회 전체에서의 생산성 하락, 사회 부적응자의 증가 등으로 현대 사회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부각 되고,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우리 사회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현대 아동이 겪는 문제들은 사회성의 결핍, 혹은 사회성의 낮은 수준의 발달로 일어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이란(Leonard, 1980), 인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해가며 타인과 어울리는 정도와 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성이 높을수록 환경에 적응력이 높으며 타인과 어울리는 것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사회성이 낮을수록 그 사람은 주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어울림에 어려움을 가지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 교육은 초등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에게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지능력들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사회성을 발달시키

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스포츠, 신체활동을 들 수 있다. 이미, 여러 선행 연구(권민혁, 1994; 김의구, 2007; 박상재, 2002; 안병수, 2008; 양영섭, 2003; 하지원, 199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기,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다양한 방면으로 그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는 아동에게 집단에 잘 적응하고, 사회의 행동규범을 준수하며, 사회의 규칙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게 되어 아동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권민혁, 1994). 또 스포츠 활동에 의한 아동은 공격성과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발산하여 해소할 수 있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난관을 해결하였을 때 자신감을 가지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아동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탈자기중심화'가 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며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규칙 준수, 예절, 협동, 경쟁, 스포츠맨 ship 등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협조, 책임성, 자율성, 성취성, 활동성, 사교성 등과 같은 사회성이 발달된다(하지원, 1993).

이런 사회성발달은 교육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아동 스스로가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학습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성 발달을 위한 환경으로써 교육의 장이 필요하며 이 교육은 강제가 아닌 아동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게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하지원, 1993). 이런 맥락에서 보면, 스포츠, 운동참여를 통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야말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사회적 발달임과 동시에, 신체적 기능과, 여러 가지 정서적 발달을 함께 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김의구, 2007; 박상재, 2002; 안병수, 2008; 양영섭, 2003)들을 보면 스포츠 활동과 아동의 사회성과의 관계를 고학년으로 수행한 연구는 사회성이 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데에서 미흡한 연구일 것이다.

그리고 아동들의 체지방률이나 건강 체력과 관련한 신체활동 수준에 관한 연구(박정화, 2005; Sleep & Tolfrey, 2001; Tremblay, Inman & Willms, 2001)들도 다소 있었지만 사회성과 신체활동 수준에 관련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발달에 따라 저·중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남녀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에 따른 사회성 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사회성 발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아동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초등학생인 아동의 방과 후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어떠한 요인이 사회성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집락무선표집 방법에 의하여 ㄷ광역시 4개 구에 초등학교 1개교씩 4개교에 1-6학년 1개 반씩 768명과 ㄷ교육대 주 1회 방과 후 농구교실에 참가하는 어린이 농구반 180명, 계 948명에서 64명의 불성실한 응답 한 아동을 제외한 884명(남; 500, 여; 384명)으로 하였고, <표 1>과 같이 성과 학년에 따른 인원과 백분율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성, 학년에 따른 인원 및 백분율 명(%)

성	학년			계
	저(1, 2)	중(3, 4)	고(5, 6)	
남	137(15.4)	182(20.5)	181(20.4)	500(56.5)
여	123(13.9)	129(14.5)	132(14.9)	384(43.4)
계	260(29.4)	311(35.1)	313(35.4)	884(100)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초등학생의 운동 참여에 따른 사회성 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 성과 학년 2문항, 독립변인으로 스포츠 활동 참여 형태에 관한 항목 3문항인 선호운동, 배운 운동, 하는 운동으로 하였으며, 응답한 운동 종목을 분류는 McIntosh(1987)의 스포츠 분류법을 참조하여 구기, 투기, 개인, 없음으로 나누었다. 참여 수준에 관한 3문항으로 배운 기간(6개월 이상과 이하), 주간빈도(3일, 1-2일, 안함), 자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회전후 요인행렬과 Cronbach' α

문항	요인	요인					h^2	α
		1	2	3	4	5		
협동성	문 7	.860					.899	.664
	문22	.742					.828	
	문 2	.693					.799	
	문12	.656					.678	
준법성	문21		.768				.818	.682
	문 6		.722				.782	
	문16		.651				.697	
활동성	문26		.524				.578	.597
	문 8			.749			.817	
	문23			.719			.888	
사교성	문28					.350	.756	.646
	문18			.533		.330	.675	
	문 9				.692		.705	
	문24		.451		.672		.797	
자율성	문19				.630		.659	.654
	문 4				.513	.423	.669	
	문30					.664	.886	
	문25					.538	.876	
활동성	문15			.317		.531	.638	.654
	문 5			.395		.521	.790	
고유치		7.230	3.165	2.323	1.395	1.140	15.253	
총변량%		27.807	12.173	8.935	5.365	4.385		
누적변량%		27.807	39.980	48.915	54.280	58.666		

신감(5단계 척도)으로 하였다. 그리고 검사지는 정범모(1971)가 제작한 초등학교 인성검사의 사회성 검사지를 이용하였으며, 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 5개요인 각 6문항으로 되었고, 문항의 응답은 5단계 척도이고,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30 문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5개 구성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낮고, 신뢰성이 낮은 각각 2개 문항이 삭제되어 각 요인 4문항씩으로 재구성하였다. 검사지의 요인별 요인부하량과 신뢰도의 Cronbach' α 는 <표 2>와 같이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 2, 3학년은 담임교사가 천천히 문항을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응답을 하도록 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64명의 자료를 제외한 884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으며,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4.0 ver.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사회성 각 요인에 따라 모수요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사회성 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변인을 구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한 영향이 있는 변인으로 각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기 위하여 주효과만 분석하는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1. 사회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기술분석

사회성인 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에 대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인 성과 학년, 방과 후 스포츠

표 3. 사회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M±SD

요인	사회성	n	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	자율성
성	남	500	3.73±.63	3.73±.62	3.39±.62	3.58±.65	3.52±.63
	여	384	3.87±.60	3.87±.59	3.39±.54	3.66±.61	3.57±.60
학년	저	260	4.16±.58	3.98±.62	3.39±.69	3.77±.70	3.78±.63
	중	311	3.78±.56	3.78±.59	3.41±.55	3.58±.59	3.51±.61
구기	고	313	3.50±.56	3.65±.59	3.37±.54	3.51±.59	3.37±.55
	투기	407	3.72±.61	3.79±.59	3.46±.58	3.66±.59	3.51±.62
선호운동	개인	40	3.88±.68	3.78±.61	3.44±.70	3.50±.73	3.60±.61
	없음	384	3.88±.59	3.84±.60	3.35±.58	3.63±.64	3.60±.60
배운운동	개인	53	3.63±.79	3.53±.77	3.10±.54	3.18±.72	3.29±.68
	없음	124	3.79±.63	3.82±.65	3.51±.65	3.67±.64	3.48±.66
배운기간	투기	260	3.71±.64	3.78±.59	3.45±.59	3.60±.65	3.56±.61
	개인	103	3.84±.61	3.97±.57	3.54±.59	3.72±.56	3.53±.61
하는운동	없음	397	3.83±.61	3.75±.61	3.27±.55	3.57±.64	3.55±.61
	구기	157	3.83±.70	3.85±.64	3.51±.62	3.67±.64	3.53±.70
배운기간	투기	16	3.78±.66	3.61±.44	3.60±.65	3.61±.59	3.58±.62
	개인	415	3.79±.59	3.82±.59	3.41±.55	3.60±.60	3.57±.59
주간빈도	없음	296	3.78±.62	3.74±.63	3.28±.60	3.60±.69	3.51±.61
	6개월이상	413	3.74±.62	3.83±.59	3.49±.60	3.64±.63	3.53±.62
자신감	6개월이하	471	3.84±.62	3.76±.63	3.30±.57	3.58±.63	3.55±.61
	3인이상	270	3.82±.62	3.86±.56	3.54±.56	3.64±.60	3.63±.60
자신감	1.2인	316	3.78±.63	3.79±.63	3.36±.58	3.59±.61	3.49±.63
	안함	298	3.78±.62	3.74±.63	3.29±.60	3.60±.69	3.51±.61
자신감	아주잘함	90	4.25±.60	4.21±.52	3.79±.64	4.04±.60	4.03±.59
	잘함	190	3.90±.60	3.98±.56	3.55±.58	3.76±.57	3.64±.59
자신감	보통	418	3.68±.58	3.67±.56	3.29±.51	3.51±.59	3.42±.56
	못함	135	3.67±.58	3.72±.61	3.30±.56	3.50±.63	3.51±.60
자신감	아주못함	51	3.69±.73	3.62±.83	3.11±.75	3.41±.83	3.39±.77

츠 참여 형태를 선호운동, 배운 운동, 하는 운동으로 구분하였고, 참여 형태에 따라 구기, 투기, 개인 운동과 없음으로 분류하였으며, 참여 수준은 배운 기간, 주간 빈도, 자신감(5단계 척도)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서 사회성의 평균은 남녀의 차이는 없으나,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잘 할수록 평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수요인

다중회귀분석의 단계적 선택법에 의해 각 사회성에 따라 나타난 유의한 모수요인들은 <표 4>와 같다.

사회성의 준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방과 후 스포츠 참가 형태와 수준의 모수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을 때, 준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수요인은 <표 4>에서와 같이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 요인들로 준법성

표 4. 사회성에 대한 모수요인의 다중회귀분석

모수요인	B	SE	β	R2	t	p	
준법성	상수	5.108	.091		55.985	.000	
	학년	-.349	.023	-.447	.175	-14.866	.000
	자신감	-.150	.019	-.238	.237	-8.068	.000
	주간빈도	-.081	.024	-.103	.244	-3.403	.001
협동성	상수	5.073	.171		29.612	.000	
	학년	-.214	.026	-.279	.064	-8.365	.000
	자신감	-.137	.020	-.220	.112	-6.737	.000
	주간빈도	-.067	.026	-.087	.123	-2.583	.010
활동성	선호운동	-.066	.021	-.114	.128	-3.223	.001
	성	.156	.045	-.125	.137	3.462	.001
	배운기간	-.110	.042	-.089	.143	-2.650	.008
	상수	4.727	.184			25.674	.000
사교성	자신감	-.160	.019	-.266	.076	-8.375	.000
	배운운동	-.014	.025	-.028	.096	-2.793	.005
	주간빈도	-.079	.025	-.107	.106	-3.134	.002
	선호운동	-.065	.019	-.115	.112	-3.333	.001
자율성	학년	-.069	.025	-.093	.117	-2.761	.006
	배운기간	-.113	.055	-.095	.121	-2.063	.039
	상수	4.651	.100			46.514	.000
	자신감	-.168	.020	-.260	.063	-8.206	.000
자율성	학년	-.172	.026	-.216	.093	-6.547	.000
	선호운동	-.097	.020	-.161	.117	-4.888	.000
	상수	4.605	.097			47.567	.000
자율성	학년	-.228	.025	-.294	.067	-9.127	.000
	자신감	-.139	.020	-.222	.121	-7.063	.000
	주간빈도	-.096	.025	-.123	.134	-3.810	.000

을 예측하는 설명력은 24.4%이며,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Y=5.108-.349x1-.150x2-.081x3$$

Y; 준법성 X1; 학년 X2; 자신감 X3; 주간빈도

각각의 모수요인들이 준법성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학년($\beta=-.447$)이 가장 높고, 자신감($\beta = -.238$), 주간빈도($\beta=.103$)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을 하였을 때, 협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수요인은 성,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 선호운동, 배운 기간이며, 활동성은 자신감, 배운 운동, 주간빈도, 선호운동, 학년, 배운 기간이고, 사교성은 자신감, 학년, 선호운동이며, 자율성은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로 나타났다.

3.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모수요인분석

사회성의 각 요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각 모수요인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성의 준법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된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에 대하여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수요인 간 수량화 관점에서 비교를 실시하면 <표 5>와 같이 모수 간 효과 검정을 나타낼 수 있다.

표 5. 준법성의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87.847	8	10.981	37.038	.000
절편	7954.548	1	7954.548	26830.532	.000
학년	59.575	2	29.787	100.473	.000
자신감	20.749	4	5.187	17.497	.000
주간빈도	3.567	2	1.783	6.015	.003
오차	259.415	875	.296		
합계	13090.444	884			
수정 합계	347.262	883			

학년 효과가 F값이 100.473($p=.0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신감, 주간빈도의 효과는 F값이 각각 17.497, 6.01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통계적 유의성보다 준법성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수량

표 6. 준법성의 모수 추정값

모수	B	SE	t	p	95% Low	UP	
절편	3.151	.088	35.660	.000	2.978	3.325	
저학년	.684	.048	14.170	.000	.589	.779	
중학년	.312	.044	7.081	.000	.226	.399	
고학년	0	
아주잘함	.612	.096	6.353	.000	.423	.800	
자신감	잘함	.356	.087	4.101	.000	.186	.526
	보통	.187	.082	2.274	.023	.026	.348
	못함	.112	.090	1.237	.216	-.066	.290
	아주못함	0
주간빈도	3일 이상	.156	.047	3.281	.001	.063	.249
	1, 2일	.120	.045	2.664	.008	.032	.208
	안함	0

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우선 학년에 대하여 고학년이 0으로 기준이 되면, 중학년이 .312($t=7.081$, $p=.000$), 저학년이 .684($t=14.170$, $p=.000$)로 수량화된다. 그러므로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준법성이 매우 높고, 다음은 중학년이며, 고학년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은 아주 못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아주 잘함 .612($t=6.353$, $p=.000$), 잘함 .356($t=4.101$, $p=.000$)로 수량화되고, 보통은 .187($t=2.274$, $p=.023$)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못함은 .112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준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간빈도는 안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주간빈도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집단이 .156($t=3.281$, $p=.001$)로 수량화되고, 1-2일 집단은 .120($t=2.664$, $p=.008$) 나타나, 하지 않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주간빈도가 많을수록 준법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의 협동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된 성, 학년, 자신감, 배운 기간, 주간빈도, 선호운동에 대하여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수요인 간 수량화 관점에서 비교를 실시하면 <표 7>과 같이 모수 간 효과 검정을 나타낼 수 있다. 학년 효과가 F값이 28.116($p=.000$)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신감, 성, 배운 기간, 주간빈도, 선호운동의 효과는 F값이 각각 14.152, 8.799, 4.748, 3.513, 3.88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통계적 유의성보다 협동성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수량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7. 협동성의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수정모형	53.452	13	4.112	12.665	.000
절편	3728.613	1	3728.613	11485.195	.000
성	2.857	1	2.857	8.799	.003
학년	18.255	2	9.128	28.116	.000
자신감	18.378	4	4.594	14.152	.000
배운기간	1.541	1	1.541	4.748	.030
주간빈도	2.281	2	1.140	3.513	.030
선호운동	3.781	3	1.260	3.883	.009
오차	282.441	870	.325		
합계	13099.333	884			
수정 합계	335.893	883			

표 8. 협동성의 모수 추정값

모수	B	SE	t	p	95% Low	UP	
절편	3.187	.122	26.189	.000	2.948	3.426	
남자	-.137	.046	-2.966	.003	-.228	-.046	
여자	0	
저학년	.395	.053	7.497	.000	.292	.499	
중학년	.160	.046	3.456	.001	.069	.252	
고학년	0	
아주 잘함	.519	.103	5.053	.000	.318	.721	
자신감	잘함	.353	.093	3.801	.000	.171	.536
	보통	.102	.087	1.182	.237	-.068	.272
	못함	.126	.095	1.325	.186	-.061	.313
	아주 못함	0
배운기간	6개월이상	.092	.042	2.179	.030	.009	.174
	6개월이하	0
주간빈도	3일이상	.132	.051	2.569	.010	.031	.233
	1,2일	.093	.048	1.926	.054	-.002	.187
	안함	0
	구기	.269	.085	3.149	.002	.101	.437
선호운동	투기	.199	.122	1.627	.104	-.041	.439
	개인	.166	.085	1.967	.050	.000	.332
	없음	0

우선 성(남녀)에 대하여 여자가 0으로 기준이 되면, 남자가 -.137($t=2.966, p=.003$)로 수량화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협동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년에 대하여 고학년이 0으로 기준이 되면, 중학년이 .160($t=3.456, p=.001$), 저학년이 .395($t=7.497, p=.000$)로 수량화되어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협동성이 매우 높고, 다음은 중학년이며, 고학년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은 아주 못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아주 잘함 .519($t=5.053, p=.000$), 잘함 .353($t=3.801, p=.000$)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보통과 못함은 .102, 126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어($p>.05$) 자신감이 높을수록 협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배운 기간은 6개월 이하가 0으로 기준이 되고 6개월 이상이 .092($t=2.179, p=.030$)로 유의한 차이 있으므로 배운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배우지 않거나 짧은 집단보다 협동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간빈도는 안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주간빈도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집단이 .132($t=2.569, p=.010$)로 수량화되고, 1-2일 집단은 .093($t=1.926, p=.054$) 나타나, 하지 않는 집단과 다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주간빈도에서 운동을 많이 할수록 협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호운동은 없음이 0으로 기준이 되고, 구기가 .269 ($t=3.149, p=.002$), 개인이 .166($t=1.967, p=.050$)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투기는 .199로 수량화 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사회성의 활동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된 학년, 자신감, 배운 기간, 주간빈도, 선호운동, 배운 운동에 대하여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수요인 간 수량화 관점에서 비교를 실시하면 <표 9>와 같이 모수 간 효과 검정을 나타낼 수 있다. 자신감 효과가 F값이 17.988($p=.000$)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간빈도, 배운 운동의 효과는 F값이 각각 5.706, 4.200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01$), 학년, 배운 기간, 배운 운동은 모수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통계적 유의성보다 활동성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수량화 관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인만을 살펴

표 9. 활동성의 개체간 효과 검정

소스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
수정모형	44.805	15	2.987	9.696	.000
절편	2558.400	1	2558.400	8304.879	.000
학년	1.307	2	.653	2.121	.121
자신감	22.166	4	5.541	17.988	.000
배운기간	.228	1	.228	.739	.390
주간빈도	3.515	2	1.758	5.706	.003
선호운동	3.881	3	1.294	4.200	.006
배운운동	1.201	3	.400	1.299	.274
오차	267.396	868	.308		
합계	10497.722	884			
수정합계	312.201	883			

표 10. 활동성의 모수 추정값

모수	B	SE	t	p	95% Low	UP	
절편	2.782	.115	24.110	.000	2.555	3.008	
저학년	.099	.051	1.935	.053	-.001	.200	
중학년	.070	.045	1.545	.123	-.019	.159	
고학년	0	
아주 잘함	.612	.099	6.201	.000	.418	.806	
자신감	잘함	.392	.089	4.394	.000	.217	.567
보통	.161	.084	1.919	.055	-.004	.326	
못함	.145	.093	1.565	.118	-.037	.327	
아주 못함	0	
주간빈도	3일이상	.148	.051	2.908	.004	.048	.247
1,2일	.006	.049	.126	.900	-.089	.102	
안함	0	
선호운동	구기	.257	.083	3.100	.002	.094	.420
투기	.200	.119	1.675	.094	-.034	.435	
개인	.145	.082	1.757	.079	-.017	.307	
없음	0	

보면 <표 10>과 같다.

우선 학년에 대하여 고학년이 0으로 기준이 되면, 저학년이 .099($t=1.935$, $p=.053$)로 수량화되어 고학년과 경계적인 차이가 있지만, 중학년이 .070($t=1.545$, $p=.123$)으로 수량화되어 고학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높으나, 중, 고학년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은 아주 못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아주 잘함 .612($t=6.201$, $p=.000$), 잘함 .392($t=4.394$, $p=.000$)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보통은 .161($t=1.919$, $p=.055$)로 수량화되어 경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못함은 .145로 수량화 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활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간빈도는 안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주간빈도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집단이 .148($t=2.908$, $p=.004$)로 수량화 되고 하지 않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1-2일 집단은 .006($t=.126$, $p=.900$)으로 나타나, 하지 않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주간빈도가 3일 이상 할수록 활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선호운동은 없음이 0으로 기준이 되고 구기 운동을 선호하는 집단이 .257($t=3.100$, $p=.002$)로 수량화되고 선호운동이 없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투기와 개인 운동은 .200($t=1.675$, $p=.094$), .145($t=1.757$, $p=.079$)로 경계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선호운동(특히 구기)이

표 11. 사교성의 개체간 효과 검증

소스	제III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49.316	9	5.480	15.395	.000
절편	3349.667	1	3349.667	9410.706	.000
학년	11.926	2	5.963	16.753	.000
자신감	23.974	4	5.994	16.839	.000
선호운동	12.482	3	4.161	11.689	.000
오차	311.093	874	.356		
합계	11926.028	884			
수정 합계	360.410	883			

있을수록 활동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의 사교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된 학년, 자신감, 선호운동에 대하여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수요인 간 수량화 관점에서 비교를 실시하면 <표 11>과 같이 모수 간 효과 검정을 나타낼 수 있다. 모수 간 효과에서 학년($F=16.753$), 자신감($F=16.839$), 선호운동($F=11.689$)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통계적 유의성보다 사교성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수량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우선 학년에 대하여 고학년이 0으로 기준이 되면, 저학년이 .307($t=5.758$, $p=.000$)로 수량화되어 고학년과 확실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중학년도 .108($t=2.230$, $p=.026$)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사교성이 매우 높고, 다음은 중학년이며, 고학년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은 아주 못함이 0으로 기준이 되고, 아주 잘함 .628($t=5.970$, $p=.000$), 잘함 .386($t=4.050$, $p=.000$)로 수량화

표 12. 사교성의 모수 추정값

모수	B	SE	t	p	95% Low	UP	
절편	2.854	.120	23.703	.000	2.618	3.091	
저학년	.307	.053	5.758	.000	.203	.412	
중학년	.108	.048	2.230	.026	.013	.203	
고학년	0	
아주잘함	.628	.105	5.970	.000	.421	.834	
자신감	잘함	.386	.095	4.050	.000	.199	.573
보통	.166	.090	1.840	.066	-.011	.342	
못함	.125	.099	1.257	.209	-.070	.320	
아주못함	0	
선호운동	구기	.488	.088	5.537	.000	.315	.661
투기	.271	.125	2.161	.031	.025	.517	
개인	.352	.088	3.998	.000	.179	.525	
없음	0	

표 13. 자율성의 개체간 효과 검증

소스	제Ⅲ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수정모형	54.557	8	6.820	20.790	.000
절편	7007.395	1	7007.395	21362.074	.000
학년	22.276	2	11.138	33.954	.000
자신감	23.099	4	5.775	17.604	.000
주간빈도	4.431	2	2.216	6.754	.001
오차	287.026	875	.328		
합계	11447.667	884			
수정합계	341.583	883			

되어 확실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보통은 .166($t=1.840$, $p=.066$)으로 수량화되어 경제적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못함은 .125로 수량화 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교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호운동은 없음이 0으로 기준이 되고 구기 운동과 개인 운동을 선호하는 집단이 .488($t=5.537$, $p=.000$), .352($t=3.998$, $p=.000$)로 수량화되고 선호운동이 없는 집단과 확실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투기 운동은 .271($t=2.161$, $p=.031$)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선호운동이 있을수록 사교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의 자율성에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된 학년, 자신감, 주간빈도에 대하여 모수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수요인 간 수량화 관점에서 비교를 실시하면 <표 13>와 같이 모수 간 효과 검정을 나타낼 수 있다.

모수 간 효과에서 학년($F=33.954$), 자신감($F=17.604$), 주간빈도($F=6.754$)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통계적 유의성보다 자율성에 대한 모수 추정값을 수량화 관점에서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우선 학년에 대

표 14. 자율성의 모수 추정값

모수	B	SE	t	p	95% Low	Up	
절편	3.059	.093	32.906	.000	2.876	3.241	
저학년	.418	.051	8.237	.000	.319	.518	
중학년	.172	.046	3.701	.000	.081	.263	
고학년	0	
자 신 감	아주잘함	.639	.101	6.315	.000	.441	.838
	잘함	.323	.091	3.532	.000	.143	.502
	보통	.198	.095	2.078	.038	.011	.385
	못함	.130	.086	1.503	.133	-.040	.299
	아주못함	0
주 간 빈 도	3일이상	.180	.050	3.606	.000	.082	.278
	1,2일	.060	.047	1.265	.206	-.033	.153
	안함	0

하여 고학년이 0으로 기준이 되면, 중학년이 .172($t=3.701$, $p=.000$), 저학년이 .418($t=8.237$, $p=.000$)로 수량화된다. 그러므로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매우 높고, 다음은 중학년이며, 고학년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은 아주 못함인 0으로 기준이 되고, 아주 잘함 .639($t=6.315$, $p=.000$), 잘함 .323($t=3.532$, $p=.000$)로 수량화되고, 보통은 .198($t=2.078$, $p=.038$)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못함은 .130으로 수량화되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간빈도는 안함인 0으로 기준이 되고 주간빈도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집단이 .180($t=3.606$, $p=.000$)으로 수량화되어 하지 않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1-2일 집단은 .060으로 나타나 운동을 하지 않는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그러므로 주간빈도가 3일 이상하여야 자율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참여의 형태와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권지현(2007), 박상재(2002)와 양영섭(2003)에 의해 실행되었던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에 한정하여 초등학교 학년 전반에서의 발달의 변화에 따른 연구결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고, 여상만(2008)의 연구에서는 소도시를 대상으로 남녀를 각각 분석 했던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대도시 저(1, 2학년), 중(3, 4학년), 고(5, 6학년)학년에 걸친 전 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사회성 발달에 따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방과 후 스포츠 참여의 형태와 수준의 모수요인이 사회성의 5가지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에서 학년이 5개 사회성 요인에 모두 포함된 것은 아동의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이 사회성 발달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²로 알 수 있는 사회성 각 요인의 설명력은 준법성이 24.4%로 가장 높으며, 사교성이 11.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지만, 유의한 요인들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모수요인분석에 의하여 성차는 협동성에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지만, 다른 사회성 요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의 결과에서 저학년일수록 사회성의 평균이 높으며, 고학년일수록 사회성의 평균이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상만(2008)의 연구에서 여자 아동의 스포츠 참여가 저조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신이 없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여자 아동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하고, 저학년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호기심으로 높은 사회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기 때문에 협동심이 낮아 질 수 있으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는 신체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함께 하는 스포츠 참여가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활동성이 낮아지는 현상에서 고학년이 될 수록 활동하기를 싫어하고, 활동에 소극적으로 변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준에 맞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스포츠 활동을 준비하고,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인 아동의 사회성 발달 연구를 위하여 학년과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의 각 변인에 대한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준법성 이외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준법성에서의 상호작용효과도 저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 고학년에서만 차이가 있었으므로 상호작용효과는 분석하지 않고 주효과만 분석하는 모수요인분석이 바람직하였다.

스포츠 참여 형태에서 배운 운동과 하는 운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p>.05$), 선호운동은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에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 여상만(2008)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스포츠의 선호수준에 대한 선행연구(곽은창 및 권순정, 1999; Browne, 1992; Luke & Sinclair, 1991; Treaner, Graber, Hosner & Wiegand, 1999)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것보다 구기, 개인, 투기 운동을 좋아할수록 이 부분의 사회성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직, 간접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도 사회성을 기르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 참여 수준에서 운동에 대한 자신감이 사회성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성 5개요인 모두 높으며 확실하고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운동능력에 대한 생각이 사회성의 여러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의 학습 에서 재미나 즐거움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중단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김병준 및 성창훈, 1996; Gill, Gross & Huddleston, 1983)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에게는 스포츠의 즐거움 학습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이로 인한 자신감을 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이 되어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간빈도는 3일 이상 운동을 하는 집단이 안하는 집단보다 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준법성은 1-2일 운동하는 집단도 안하는 집단보다 높았다. 방과 후 스포츠 활동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사회성의 준법성, 협동성, 활동성, 자율성을 익힌다고 생각한다. 사회성에 주간빈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권지현(2007), 양영섭(2003), 최충식(2001), 여상만(2008)의 연구에서 참여빈도가 준법성과 협동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박상재(2002)의 연구결과와 같은 현상이며 이는 또한 초등학생의 생활체육 참가 빈도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만근(2000)의 연구 결과와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와 참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친 사회적 행동이 높다는 강태원(1999)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교성의 결과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최충식(2001)의 연구에서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사교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여상만(2008)의 연구의 결과와 참여 빈도는 사교성에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김경미(2003)는 생활체육에의 참여강도와, 참여빈도 또한 자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운동을 배운 집단은 6개월 이하인 집단보다 협동성이 높았으며, 여상만(2008)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다른 사회성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은 권지현(2007)의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협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장기간 학습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스포츠 참여 형태와 수준이 아동들의 사회성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과 학년, 스포츠 활동 참여 형태 및 참여 수준을 조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사회성 요인 중 협동성은 성차가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고, 저학년일수록 사회성 요인 모두 높다.

스포츠 참여 형태에서 배운 운동, 하는 운동의 종류는 사회성에 관여하지 않지만, 선호운동이 있는 아동이 협동성, 활동성, 사교성에서 선호운동이 없는 아동보다 높다. 스포츠 참여 수준에서 운동에 자신감이 있는 아동일수록 사회성이 높으며, 주간빈도가 많을수록 사회성이 높다. 6개월 이상 배운 아동은 협동성 함양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사회성은 저학년일수록 높고,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신감, 주간빈도, 선호운동이다.

참고문헌

- 강태원(1999). 아동의 스포츠활동 참가에 따른 역량지각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 사회체육대학원, 서울.
- 곽은창, 권순정(1999). 중학생의 남녀공학 체육수업 형태의 선호도와 체육활동에 관한 자아 개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6(2), 13-27.
- 권민혁(1994). 취학 전 아동의 신체활동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서울.
- 권지현(2007). 스포츠 활동 참여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 김경미(2003). 초등학생의 생활체육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충북.
- 김만근(2000).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생활체육 참가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대학원, 수원.
- 김병준, 성창훈(1996). 청소년의운동선수의 스포츠 참가동기 심층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7, 153-171.
- 김의구(2007).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비만이 사회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공주.
- 박상재(2002).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체육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진주.
- 박정화(2005). 아동의 운동 참여와 수준이 신체 발육과 체지방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4(1), 663-674.
- 안병수(2008). 초등학생의 생활체육활동 참여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 양영섭(2003). 방과후 신체활동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대학원, 공주.
- 여상만(2008). 초등학생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 활동의 모수요인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 이승진, 이홍수, 이상화, 심경원(2009). 또래 관계 및 가족 기능이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가정의학회지, 30(7), 533-538.
- 정범모(1971). 인성검사법 요강. 서울: KTC.
- 최충식(2001). 초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와 사회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충북.
- 하지원(1993). 아동의 스포츠 참가와 사회성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Browne, J. (1992). Reasons for the selection or nonselection of physical education studies by year 12 girl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1, 402-410.
- Gill, D. L., Gross, J. B., & Huddleston, S. (1983).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4, 1-14.
- Leonard, W. M. (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 Minneapolis, MN: Burgess Publishing Company.
- Luke, M. D., & Sinclair, G. D. (1991).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1, 31-46.
- McIntosh, P. (1987). *Sport in society*. London: West London Press.
- Sleap, M., & Tolfrey, K. (2001). Do 9 to 12 yr-old children meet existing physical activity recommendations for health? *Medicine. Science in Sports Exercise*, 33(4), 591-596.
- Treaner, L., Graber, K., Hosner, L., & Wiegand, R. (1999). Middle school students perceptions of coeducation and same-sex physic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18, 43-56.
- Tremblay, M. S., Inman, J. W., & Willms, J. D.(2001). Preliminary evaluation of a video questionnaire to assess activity levels of children. *Medicine. Science in Sports Exercise*, 33(12), 2139-2144.